

검찰·노동청·안전보건공단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 김인중 기자 | ⓒ 승인 2022.01.14 13:14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현장사진 [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중 기자 =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덕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고광재)는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평택·안성 총 653개) 중 희망 사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등 200여명을 상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합리적인 법적용을 위해 관련기관들이 대비태세를 갖추고, 사업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궁금증과 문제 등을 잘 살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입법취지에 따라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재해율 감소 및 재해예방 노력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 11일 관내 건설현장 98개소와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 MOU 체결을 시작으로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금일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현장지원단을 통한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중 기자 snakorea.rc@gmail.com